

배우 김보미, 솔앤피플과 전속계약

등록 2021.10.01 19:10:32



[서울=뉴스시스]배우 김보미. (사진=솔앤피플 제공) 2021.10.01. photo@newsis.com

[서울=뉴스시스] 강진아 기자 = 배우 김보미가 솔앤피플과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.

솔앤피플은 1일 "배우 김보미가 당사와 함께하게 됐다. 연기는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도약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겠다"고 밝혔다.

김보미는 지난 2011년 영화 '써니'에서 미스코리아를 꿈꾸는 어린 복지 역할을 맡아 눈길을 끌었다. 이후 드라마 '별에서 온 그대', '어셈블리', '맨투맨' 등 다수 작품에 출연했고 최근 마지막 작품으로는 지난 2019년 '단, 하나의 사랑'에서 발레리나 금니나 역할을 맡았다.

김보미는 "새로운 회사와 함께하게 됐다. 좋은 에너지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들로 인사드리겠다. 앞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기대해 달라"고 소감을 전했다.

솔앤피플에는 배우 권동호, 윤슬, 서한결이 소속돼 있다.

©공감언론 뉴시스 akang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